

강이야기
3
River & Culture



이 학 영 | 이학박사/ 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우리협회 건설분과 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이학영의 자생어 칼럼 23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청정지역 귀공자-금강모치

학 명 : *Rhynchocypris kumgangensis*

지역 방 언 : 산피리, 청산피리, 금중태기 등

분 류 : 잉어목 황어아과

자 생 수역 : 한강과 금강 수계의 최상류

주 서식장소 : 1급수 수역 큰바위와 자갈이 깔린 계류

번 식 기 : 4-6월

크 기 : 10센티 내외

일급수의 계곡에만 숨어 사는 금강모치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세계에서 오직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만 자생하는 물고기다. 몸은 옆으로 약간 통통하면서 길쭉한 유선형으로 매우 날렵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

맑은 물에서만 살다보니 눈이 초롱초롱 빛날 정도로 맑고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주둥이는 뾰족하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가운데가 약간 갈라지고 등지느러미는 삼각형 모양이다.

같은 산간 계류형 어종인 버들개, 버들치와도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나 이들과는 달리 등지느러미 시작 부분에 검은색 작은 반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쉽게 구별이 되며 통상 버들치보다 수질오염에 더 민감하고 수온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청정수역의 지표종이라 할 수 있다. 실지 실험용이

나觀賞용 수조에 길러보면 금강모치가 버들개, 버들치보다 매우 약한 어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통 때의 몸의 색은 담황색으로 등 부분이 더 진하고 배 쪽으로는 연해진다. 몸을 세로로 걸쳐 빛에 반짝이는 반사피가 한 줄 있다. 그 밑으로 연한 줄무늬가 있는데 4-6월 번식기에는 이 부분이 두 줄의 아름다운 적황색이나 금속성 황동색으로 물들고 귀퉁이 있는 모습으로 인해 계곡의 귀공자로 불리고 있다.

번식기의 금강모치는 수 십 마리가 둥근 실타래처럼 어우러져 짝짓기 축제를 벌이고 자갈이 깔린 여울에 산란을 한다. 이때의 요란스런 소동은 그들이 자연을 향해 해마다 어김없이 펼치는 일대 장관이라 할 것이다.

금강모치라는 이름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금강산 자락에서 처음 과학자의 눈에 띄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기도 하고 금강에 사는 귀여운 물고기라는 뜻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금강에서는 아주 희소어종이 되어 전에는 환경부 지정 보호어종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근래에 해제되어 남획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자체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천렵을 즐기는 행락객들이 희소어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는 주변이 거의 일급수의 맑은 물로 흔하게 보였던 금강모치는 환경오염으로 밀리고 밀려 지금은 한강 수계의 인제, 평창, 정선, 단양 등의 심산유곡에 본의 아니게 은둔하여 살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물고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모치,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깨끗한 자연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길이 우리의 사명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금강모치가 서식하는 하천은 거의 최상류의 산간 계류 구역이라 어지간해서는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산사태로 인해 계곡 하천이 유실되거나 기타 요인으로 복원사업이 행해질 때에는 금강모치 등 1급수 계류 어종들의 주요한 서식처에 큰 돌과 자갈의 여울, 율동을 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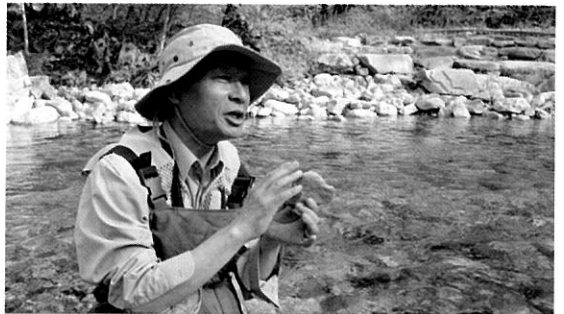
수심 1m 이상의 소를 조성하고 하천 주위에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활엽수 군락의 식생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



금강모치: 번식기를 지나면 체색이 수수해진다.



금강모치: 봄철 번식기에 붉은 빛을 띤 황금색 혼인처장을 한 금강모치가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모두 1급수의 청정지역으로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다.



남천계곡: 금강모치가 서식하는 소백산 남천계곡에서 수생태 현장 강의 중인 필자.

수강생 모집 안내

- 과 정 명: 고려대학교 자연환경전문가 <수생태해설사> 자격증 과정 제 5기
- 지도 교수: 이학박사 이학영
- 강의 일시: 2013년 3월 첫 주 ~ 6월 / 한 학기
 - * 실내강의: 매주 목 오후 5-7시
 - * 현장탐사: 토, 일, 공휴일
- 장 소: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라이시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 내 용: 수생태 및 환경 전반(수서생물, 생태하천, 생태치유, 생태CEO론 등)
- 대 상: 성인 누구나
- 사전 서류 접수: 지도교수 이학박사 이학영 rhys@hanmail.net 010-3274-7282
 - * 별도 기수 20인 이상일 시 지방 및 단체, 기업 파견 교육.



자연환경전문가 <수생태해설사> 자격증 과정



고려대학교